

사과문을 올립니다.

저는 2017년 술자리에서 타인을 성적으로 희롱하고 추행하는 등 변명할 수 없는 명백한 죄를 지었습니다.

피해자분은 문제제기를 통해 활동의 일부를 제한 할 것을 제시했습니다.

피해자분이 제시한 내용은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최소한의 제한들 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신진작가를 멘토링하는 활동을 시작했고 피해자분 과의 약속을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피해자분이 제시한 자숙과 반성 그리고 성범죄 재발의 방지를 위한 요청을 지키지 않고 활동을 확장했습니다.

저는 타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했을 뿐 아니라 범죄 이후 저와 관계된 모든 분들을 기만했습니다.

올 해 7월 피해자분에게 약속을 이행하지 않은 상황에 대해 다시 문제제기를 받았습니다.

처음 약속했던 활동의 일부를 제한하는 것을 이행하고 다시는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저의 범죄 사실을 대외적으로 알릴 것을 요청했습니다.

피해자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리며 제시한 사항을 이행하겠습니다.

송윤혁
송윤혁